

'18세'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우뚝...자신의 시대 열었다

U-20 월드컵 준우승 이후 소속팀서 첫 선발에 데뷔골까지

쏟아지는 극찬 속 남은 건 소속팀 · 대표팀 주전 경쟁

'막내형', '골든보이', 그리고 '날아라 슛돌이'... 18세 218일의 이강인(발렌시아)을 수식하는 단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많다. 그만큼 한국 축구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의미다.

유소년 시절 축구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강인이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는 26일 오전(한국시간) 발렌시아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헤타페와의 2019-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이강인은 이날 라리가 첫 선발 멤버로 73분간 맹활약했다. 특히 2-1로 앞선 전반 39분 호드리고 모레노의 크로스를 논스톱 오른 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데뷔골까지 뽑아냈다.

아울러 팀이 기록한 3골 모두 관여하며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으로부터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7.27점)을

받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U-20 월드컵 골든볼에도 끌리는 이적설

"(발렌시아에서는 뭘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니다." (지난 7월1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우승 기념 격려금 전달식)

평소 신중하게 발언하던 이강인이 한국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U-20 월드컵 준우승의 쾌거에 골든볼(최우수 선수)까지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인 이강인에게 울며타는 이적설은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스페인인 명문 구단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은 월드컵 전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경기력을 위해 더 뭘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실제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 체제에서 별다른 기회를 받지 못했다.

주로 컵 대회에 교체로 나섰고 그마저도 맞는 옷이 아닌 잉어로 출전시켰다.

하지만 U-20 월드컵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시즌부터 꾸준히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올 시즌 초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이 새로 부임한 뒤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리더니 이번엔 선발 자리까지 꿰찼다.

그리고 셀라데스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골을 기록했다. 비록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발렌시아 메스타야를 가득 채운 홈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했다.

발렌시아 구단도 "이강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강인은 구단 인터뷰에서 "후반전에 더 집중해야 했다. 골로 팀을 도울 수 있어 기뻐지만 승점 3점을 얻지 못해 아쉬웠다"고 했다.

◇대표팀도 절반...남은 건 주전 경쟁

이강인은 이미 16세 때 U-18

대표팀에 소집돼 형들과 경기장을 누볐다. 이후 18세의 나이로 U-20 월드컵에 나서 '막내형'이란 별명도 얻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도 데뷔전을 이미 치렀다. 지난 5일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깜짝 선발 투입돼 역대 최연소 A매치 데뷔 7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발렌시아에서도 이미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다. 이날 골로 외국인 출신 최연소 골을 기록한 선수이자 발렌시아 소속으로 라리가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아울러 스페인 출신 후안 메나(17세 36일), 페르난도 고메스(18세 200일)에 이어 발렌시아 구단 역사상 골을 넣은 선수 중 세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됐다.

이제 남은 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의 주전 경쟁이다. 소속팀에서는 셀라데스 감독 부임 후 꾸준히 출장 시간을 늘리고 있다.

현재 발렌시아의 미드필드 주전 선수로는 다니 페레호, 프란시스 코클랭, 제프리 콘도그비아 등이 있다. 여기에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빠진 카를로스 솔레르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

스페인 전통의 명문답게 두꺼운 스쿼드지만 이강인도 자신만의 경쟁력을 매 경기 선보이고 있



다. 대표팀에서도 권창훈, 이재성, 이청용, 김보경 등 가라성같은 선배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강인은 오는 28일 아틀레틱 빌바오와 라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 다음 달 3일 아약스 암스테르담(네덜란드)과의 UCL 조별리그 2차전 홈 경기, 6일 알라베스

와 라리가 8라운드 메스타야전을 앞두고 있다. 벤투 감독이 오는 30일 소집 예정인 대표팀에서 이강인을 다시 부른다면, 이강인은 이후 10월7일 소집된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스리랑카전(10월 10일)과 북한전(10월 15일)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 박성현 "타이틀 꼭 방어하고 싶어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

박성현(26·솔레이)이 타이틀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성현은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브리어드 크로싱 골프클럽(파72·645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 출전한다.

박성현은 지난 해 이 대회에서 미국의 리제 살라스와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하는 올해 대회에서 박성현은 타이틀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성현은 대회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타이틀을 지켜본 적이 없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해내고 싶다"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재미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우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이를 이겨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평균자책점 타이틀 노리는 류현진, FA 대박으로 이어질까

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등판날 1위 결정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놓고 경쟁 중인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이 먼저 시즌 마지막 등판을 마쳤다. 류현진(32·LA 다저스)이 남은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1위 자리를 지키며 향후 자유계약 선수(FA) 시장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현진은 26일(한국시간) 현재 평균자책점 2.41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8월말부터 9월초 부진에 빠져 평균자책점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날 디그롬이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7이닝 2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평균자책점을 2.43으로 낮추며 류현진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평균자책점 1위는 류현진의 시즌 마지막 등판인 29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류현진이 샌프란시스코와의 최종전에서 승리투수가 될 수 있는 5이닝 이상을 던지며 무실점 또는 1실점을 기록하면 평균자책점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실점할 경우 적어도 6/3이닝을 던져야 디그

롬보다 평균자책점에서 앞서며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류현진은 박찬호, 노모 히데오 등 동양인 투수를 대표했던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라는 위업을 이룰 수 있다.

첫 개인 타이틀 수상은 포스트 시즌 후 FA시장에서도 류현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와 부상 이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선발 투수 보강을 노리는 팀들에게 류현진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최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FA를 5등급으로 나

누면서 류현진을 2등급에 올려놨다. 류현진보다 높은 1등급에 오른 선발 투수는 개릿 폴(휴스턴)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등 2명 뿐이었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평가 받는 폴의 경우 계약 총액이 2억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예상돼 많은 구단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도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종료가 다가오면서 FA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외신들은 LA 다저스 외에도 미네소타 트윈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이 류현진 영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